

호남대 대학원 창업학과, 소상공인 돕기 '착한 소비자 운동'



호남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 창업학과(주임교수 장석주)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인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착한 소비자 운동'에 나섰다. (사진)

약속하는 등 코로나19로 생계를 걱정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 펼쳐지고 있다. 장석주 주임교수를 비롯한 대학원생들은 교수진과 창업학과 대학원생들의 원우 회비를 재원으로 활용해 우선 대학 인근 음식점과 카페 등을 지정해 선결제제를 진행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교육청 간부공무원, 의료진에 감사 '덕분에 챌린지'



지난 29일 장희국 광주시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농협·NH농협은행 광주본부 영농철 농가 봉사활동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강형구)와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본부장 최영) 임직원 40여명은 최근 삼도농협 조합원 농가 등에서 영농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파랑새 안과, 전남대 디지털도서관 건립기금 3000만원 기부



파랑새 안과(원장 임선택·김창룡·이준성)가 지난 29일 모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전남대학교에 디지털도서관 건립기금 3000만 원을 기부했다. (전남대 제공)

“치매는 누구에게라도 올 수 있는 일 가족 없어도 법적 권리 보호 받아야죠”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제1호 공공후견인 민병애 씨

40년간 세무공무원 일하다 퇴직 보람될 일 하고 싶어 공공후견인 도전 후견인 심사·교육 이수 후 자격 얻어 주택임대 계약·의료 서비스 대리 신청 금융·민원 서류관리 등 3년간 지원

광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제1호 공공후견인이 탄생했다. 86세 무연고 어르신의 후견인으로 나선 민병애(여·67)씨다. 민씨는 40여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 세무 공무원으로 활동하다 최근 퇴직했다. '보람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치렀고, 이때 요양원에서 치매 어르신을 만난 것이 전환점이 됐다. "어르신들을 보니 내 자신이나 부모님, 친구 등 누구든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었습니다." 민씨는 앞으로 3년동안 가정법원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업무를 맡게 된다. 주택임대 등 계약 체결을 돕고, 의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대리 신청해 준다. 계좌이체·예금관리 등 금융업무, 주민등록·가족관계증명 등 서류 관리도 지원한다. "행정업무가 중심인 만큼 다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해요. 요양보호사가 일상을 돕는다면, 저는 법적 책임을 대신해 도움을 드리는 거죠." 공공후견인이 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먼저 공공후견인 선별 기관에서 진행되는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후보자 양성 교육 과정을 40시간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공공후견인 후보자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후보자가 되면 치매안심센터 사례회의를 통해 돌봐야 할 치매 어르신을 찾아야 하며, 이후 가정법원 후견인 청구 절차를 거쳐 재판부의 승인을 얻어야 후견인으로 선정된다. "퇴직하기 전에는 치매 어르신 복지에 큰 관심이 없었던 만큼 치매 환자에 대해 잘 몰랐지만, 40시간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요. 치매환자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이었어요. 교육과정에서 공공후견인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됐지요." 민씨가 담당하는 어르신은 알츠하이머를 10여년 동안 앓고 있는 무연고자다. 병세가 중증으로 악화돼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다. 평생 한 번도 만난 적 없던 어르신의 후견인이 된다는 건 민씨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어색함과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 민씨는 후견인으로 지정되기 전 치매안심센터 직원과 함께 어르신 집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광산구 치매안심센터 직원과 함께 방문해 부담이 덜했어요. 덕분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지요."



민씨에 따르면 광주 각 구마다 공공후견인 후보자는 많이 있으나, 정작 공공후견인으로 발탁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피후견인을 찾는 조건이 까다로운 탓이다.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부양하는 가족이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이 있다. "어르신들이 공공후견인 제도를 많이 활용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법적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 온 경험을 잘 활용해 어르신과 잘 소통하고, 후견인 역할을 잘 수행하겠습니다." /유연재 기자 yjyou@

육군 31사단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 참여



다음 주자 김동찬 광주시의회위원장 추천

육군 31보병사단(이하 31사단)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화훼농가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시작했다. 꽃다발·화분 등을 들고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영민 31사단장은 송중욱 광주은행장의 추천으로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 참가하게 됐다. 이어 다음 주자로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을 추천했다.

또한, 31사단은 이번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 동참을 계기로 '꽃 붐이 기병군(軍)'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로 100일 가까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장병들을 위한 꽃 향수이 릴레이 캠페인'을, 대외적으로는 사단장을 비롯한 부대별 지휘관과 참모들이 '지자체 협력 파트너에게 꽃을 보내는 나눔 릴레이'를 펼친다. 아울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율적으로 꽃을 구매해 가족에게 전달하는 등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31사단장은 "이번 캠페인 참여가 화훼농가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피로감에 쌓인 부대 장병과 가족들, 지자체 파트너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인도 영화계 한 시대 풍미 '라이프 오브 파이' 이르판 칸 별세

'라이프 오브 파이', '슬럼독 밀리언어', '쥬라기 월드', '런치 박스' 등에 출연한 인도 영화배우 이르판 칸이 암 투병 끝에 53세의 나이로 숨졌다고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1988년 영화계에 데뷔한 칸은 '발리우드' 톱스타로 군림하면서 '쥬라기 월드', '인페르노' 등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도 조연으로 종종 출연해 한국 관객에게도 낯익었다. 2018년에는 희소 암의 일종인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으로 투병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칸은 당시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소설가 마거릿 미첼의 글을 인용, 팬에게 답답하게 자신의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신경계와 내분비계 조직이 문체 발병하는 종양으로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뿐만 아니라 췌장 등의 모든 소화기 장기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5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애플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투병한 것으로 많이 알려진 병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고(故)김희용·박정희씨 장남 국민 군, 이계양(전 광주YMCA 이사장)·강동희씨 장녀 세운 양=5월 9일(토) 오후 1시 30분 광주 웨딩그룹 위더스 3층 벨리체홀.

일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연제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동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

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휴대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손가정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

511-003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 재설계, 은퇴 신중론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아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